“역겁 매하지 않고 진리 삼매락 누리소서”

조계총림 방장 현봉 대종사 영결 · 다비식 엄수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5월 5일 선호당서… 3천명 운집
진우 스님 “영원히 함께 하실 것”
비 내리는 가운데도 추모 이어져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 함성과 함께 불이 치솟으며 현봉 대종사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갔다.

목우가풍(牧牛家風)을 통해 조계총림의 수행을 이끌었던 송광사 방장 남은당 현봉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봄비가 내리는 조계산에서 엄수됐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5월 1일 입적한 현봉 대종사의 영결식을 5월 5일 경내 선호당에서 봉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결사에서 “대종사께서는 50여 년을 총림에 머물면서 선농일치(禪農一致)의 사표가 되셨고 이사(理事)가 원융하여 종단의 모범이 되어 널리 사부대중을 이롭게 했다”면서 “이제 세연을 다하셨지만 천 년의 조계총림에 그림자 없는 나무가 되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대종사를 추모했다.

이어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보선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대종사께서는 생사무상(生死無常)의 고통을 느끼고 출가하신 이래 수행과 교화에 힘쓰신 선지식이셨다”면서 “산승이 금일 남은당 현봉 대종사 각령(覺靈) 전(前)에 법공양을 올리오니 잘 받아 간직하시어 역겁(歷劫)에 매하지 않고 진리의 삼매락(三昧樂)을 누리소서”라고 설했다.

현봉 대종사의 입적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조사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대독한 조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수행가풍을 높이고, 불교 대중하에도 크게 기여한 선사였다.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수행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은 큰 어른”이라며 “정부는 대종사의 큰 가르침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을 더 따뜻하게 살피고, 대종사께서 염원하셨던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추모했다.

조사에 이어 참가대중은 대종사의 영정에 꽃을 올리며 스님을 추모했다. 송광사를 대표해 주지 무자 스님은 “스님은 백장청규를 실천했고 후학들의 정신적 지도자로 모범을 보였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소탈한 모습은 대중들을 지도하신 진정한 수행자였다”고 회고했다.

영결식 이후 대종사의 법구는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이운은 인로왕번, 명정, 삼신불번 등 수많은 번과 위패, 영정을 따라 법주와 법구, 문도들이 뒤따르며 운구됐고, 다비장에 마련된 연화대에 법구가 안치됐다.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라는 함성과 함께 거화가 시작됐고 봄비가 내리는 연화대 위에 붉은 불이 치솟으며 50여 년 치열한 수행자의 삶을 살았던 현봉 대종사는 이생과의 인연을 다했다.

한편 현봉대종사 49재는 5월 7일 초재를 시작으로, 2재 5월 15일, 3재 21일, 4재 28일, 5재 6월 4일. 6재 6월 11일, 7재 6월 18일 오전 10시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봉행한다.

한마음선원, 대행 선사 12주기 추모다례재

5월 8일 본원서…1천 대중 참여
대행 선사 해외 포교 다큐 공개
혜수 스님 “한마음으로 살아가자”
‘뜻으로 푼 금강경’ 영역본 봉정


한마음선원은 5월 8일 안양본원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2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이사장 혜수 스님이 ‘뜻으로 푼 금강경’ 영역본을 봉정하는 모습.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생활 속 마음수행의 가르침을 전한 선지식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열반 12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5월 8일 안양본원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2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다례재에는 본원 및 국내외 지원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대행 선사의 향훈과 가르침을 되새겼다.

다례재에 앞서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을 법주로 〈천수경〉과 〈뜻으로 푼 반야심경〉 봉독, 축원이 이뤄졌으며, 이사장 혜수 스님과 한마음국제문화원장 청고 스님이 대행 선사가 저술한 〈뜻으로 푼 금강경〉 영역본을 부처님 전에 봉정했다. 이어진 다례재에서는 이사장 혜수 스님과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이 헌다와 헌향, 헌화를 진행했으며, 혜수 스님은 〈뜻으로 푼 금강경〉 영역본을 대행 선사 영전에도 봉정했다.

내외빈의 헌화도 이어졌다.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근일 대종사는 각령전에 꽃을 올리며 추모했고, 최대호 안양시장도 헌화하며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본원과 각 지원 신도회장, 임원들도 각령전에 헌화하며 스승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기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다례재에서는 대행 선사 열반 추모특집 다큐멘터리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추모 다큐는 대행 선사의 해외 포교 역사와 성과를 되짚어 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추모영상 상영 후에는 본원 혼성합창단이 선법가 ‘공놀이나 하여 보세’를 음성공양 올렸다.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은 대행 선사를 추모하는 시를 낭독·헌정하기도 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대행 선사 열반 12주기를 맞아 해외 지원 창건을 위해 큰스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대행 선사께서 행하신 해외 포교의 길은 영상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지원까지 큰스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녹아있다.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한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큰스님을 향해 걸어나가는 길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양=신중일 기자


음악회에는 송가인, 남상일, 주병선 등 인기가수가 총출동, 어르신들에게 추억의 노래를 선물했다.

어르신들에게 ‘추억 멜로디’ 선물

쿠무다, ‘찾아가는 봉축음악회’
5월 3일 서울 마로니에공원서
서울 종로구 관내 어르신 초청

5월 부처님오신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감성을 선사하고, 함께 추억을 떠올릴 ‘추억의 멜로디’가 서울 마로니에공원을 수놓았다.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듣는 익숙한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옛 추억에 젖어 들었다.

문화포교로 전법에 앞장서고 있는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스님)는 5월 3일 서울 종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서울 종로구 관내 어르신을 초청해 ‘2024 쿠무다 찾아가는 봉축음악회-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교도소, 군부대 등 소외된 곳이나 문화가 필요한 곳을 직접 방문해 문화의 힘을 전파하는 축제로, 이번이 15번째를 맞았다. 이번 음악회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서울노인복지센터,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등 불교계 복지시설이 함께 힘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봉축의 의미를 더했다.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음악회를 여법하게 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 관계자에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주관사를 대표해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어르신들이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준비했다”고 인사했다.

본격적인 음악회는 가수 김종환 씨의 무대로 시작됐다. ‘바램’ ‘남남으로 만나서’를 라이브로 열창해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가수 주병선 씨는 ‘칠갑산’과 ‘들꽃’을 힘 있는 보컬로 노래해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국악인 남상일은 ‘민요연곡’ ‘사랑가’ ‘아리랑연곡’ 등 친숙한 우리 전통 가락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음악회의 마지막은 ‘트로트 여제’ 가수 송가인 씨가 장식했다.

김내영 기자

대불련·홍대선원, 청년 전법 활성화 MOU

대불련 소속 불교동아리 · 회원에
템플스테이 3만원으로 할인 제공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주현우)와 저스트비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은 5월 7일 홍대선원에서 대학생·청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업무협약은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자리이타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청년 불자 리더를 육성하고, 건강한 자아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청년 대학생 전법 활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 △상호 인적, 물적, 정보교류 등을 통한 협력관계 유지 △대불련 소속 불교동아리 간 연합법회와 같은 특별 행사를 지원한다.

특히 홍대선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불련 소속 불교동아리 및 회원의 템플스테이 참가비를 3만원(다인실)으로 할인해 제공한다. 또 대불련 신입회원 웰컴기프트 선물로 홍대선원 숙박 바우처 200매를 지원키로 했다.

김내영 기자

韓國佛教太古宗

宗正 雲耕

宗正禮敬室長 東虛

僧正院
僧正 慧雲, 知足, 錦龍, 圓默, 智山

元老會議 議長 道光
首席副議長 大隱
次席副議長 雪雲
議員 德山,錦龍,鏡潭,覺林,南坡,靑山,智弘,雪山,法宣,智性,智山,保惠,世明,智玄,東佑,東杓,觀正,玄虎

中央宗會 議長 始覺
首席副議長 法輪
次席副議長 慧祐

護法院長 導鶴
副院長 瑞虎
委員 惺應,晩愚,六和,松憲,淸虎,慧學,智峰

初審院長 錦潭
副院長 明願
委員 古潭,羨覺,杲峰,蓮虛,曉門

中央選擧管理 委員長 九山
副委員長 智海
委員 法一, 智光, 寶月

總務院長 常眞
行政副院長 能解
總務部長 道惺
敎務部長 正眼
財經部長 曉能
司書室長 圓悟
社會部長 道輝
弘報部長 呑默
糾正部長 眞華
比丘尼部長 現潭
校任·傳法師部長 心圓

敎育院長 才弘
副院長 智觀
布敎院長
考試委員長 休完
法規委員長 正雲
社會福祉院長 聖海
副院長 鏡月
佛敎文藝院長 智虛
副院長 六和
東邦佛敎大學學長 法潭
敎學處長 哲悟
韓國佛敎新聞社長 淸湖
太古文化遺産傳乘事業團長 性泉
全國比丘尼會長 玄仲
全國校任傳法師會長 振話
全國信徒會
靑年會長 李承潤

종도일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전화 02) 739-3450, 팩스 02) 739-3470